東國이여, 저 새 아침의 계단을 오르자

◇사진=林 翼 斗 사진부장 Nicon F_2 28㎜, F16 1/30Sec

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崔世和
印刷人 方又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洪申晋
編輯部長 韓萬洙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謹賀新年
東大新聞社

아침, 이 새 아침에

1980년을 위하여

둘레를 짜고 춤을 추며 이 나라 벵글벵글 돌리라

伊庚林

새떼들 빨갛게 하늘을 덮었다
산짐승 들짐승 둘레를 짜고
고기떼 여울에서 춤을 춘다。

산들이 성큼 몸 일으키고
파도가 달음질치며 노래한다
보라 저 밝아오는 동녘을 보라고。

얼마나 기나긴 밤이었는가
지겹고 막막한 어둠이었는가
논밭에서 공사장에서 공장에서 강의실에서
궁벽진 시골 장터 복로에서

부르튼 손가락 이빨로 깨물고
싸늘한 재 위에 잃어진 친구들의 이름 쓰며
이 어둠 영원할는가 두려워 떨었지만。

하늘 금빛으로 물들이며 해는 뜨고
햇살은 나뭇잎에 풀잎에 바위에 와 춤을 추고。

광장에 행길에 골목에 고샅에
어둠은 숨고 햇살에 밀려
도망치고 짓밟히고 곤두박질치고。

우리는 듣는다 이 아침의 노래를
산과 들과 바다와 강과
역두와 항구에 일제히 끓어넘치는
이 젊음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우애와 평등과 평화의 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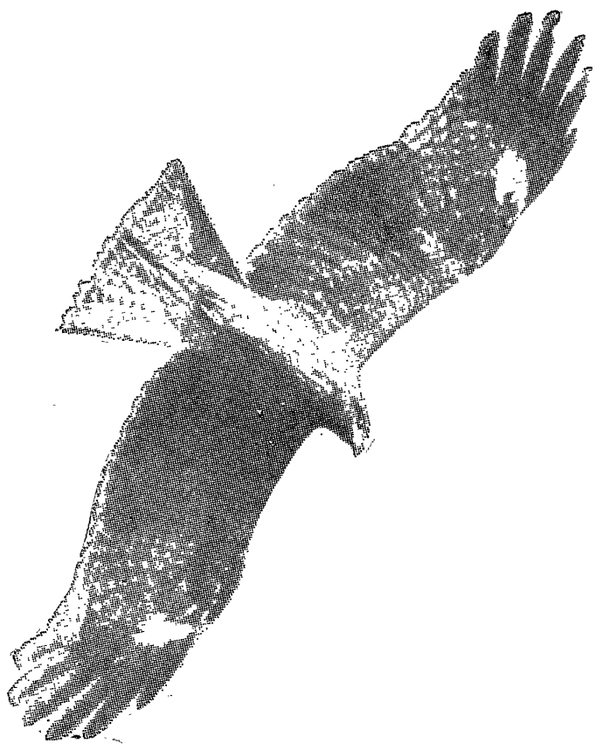
햇살은 더러움과 비겁함 위에도 고루 비치는가。
우리는 지금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몸에 밴 때, 추악함을 씻고
찬란한 햇살 앞에 손을 잡고 섰다。

우리 또한 날아올라 하늘을 덮으리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더 멀리 간도
그렇다 우리 또한 둘레를 짜고
춤을 추며 이 나라 벵글벵글 돌리라。

강의실에서 공사장에서 광산에서
벳전에서 열차칸에서 감옥에서
얼어터진 투박한 볼 서로 비비며。
백두산과 한라산이 얼싸안게 하리라
대동강과 낙동강이 손맞잡고 울게 하리라
잔돌에 진흙에 모래에 냇물에
햇살은 달려와 임을 맞추고。

우애와 평등과 평화의
새 아침, 위대한 새아침은 밝아오고
사랑과 화해와 통일의
새 아침, 역사의 새아침은 밝아오고

<동문·詩人>



높이 날수록
보다 먼곳을 볼 수 있읍니다.

뜻이 높아야 이루는 일도 큽니다.
젊음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國際그룹은
젊음이 스스로 飛翔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세계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읍니다
높이 나는 새가 보다 먼곳을 볼 수 있듯,
젊음의 뜻은 높고 커야 합니다.
우리 기업 30년은 수많은 젊음이 이룩한 창조,
그리고 도약의 의지가 쌓아올린 보람의 역사입니다.

國際그룹
ICC GROUP

새해를 맞이며

사설

참으로 多事多難했던 70年代의 除夜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조용히 봉트는 80年代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각별히 경전해야할 이유가 있을수 없고 유난히 가슴부푸는 기대가 있을 것도 아니련만 70년대를 보내고 8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所懷가 지극히 착잡한 까닭은 저 어수선했던 70年代의 屈折들이 너무도 벅차고 무거운 負債를 고스란히 80年代에 넘겨준 채 歷史의 어둠속으로 자취없이 사라져갔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80年代의 擾頭語로 우리들을 유혹했던 〈待望의…〉라는 말이 그 破綻의 깊이를 벌어놓았던 것을 떠올리면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倫理된 또는 强要된 樂天主義에 불과했던 것임가를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해는 필경 우리들이 처한 냉혹하고도 가슴 아픈 現實을 일깨워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져 있는 복잡한 狀況에 더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지나간 십수년의 우리들의 파거는 스피드한 팽창감으로 충만했던 物量攻勢主義의 연속이었거 불정의 운동장이 펼쳐진 대신 정신의 운동장이 극도로 위축된 시대로 보이며 그나마 좁아져버린 정신의 운동장에 진리가 떨쳐와 討論과 批判의 숨이 들어서는 대신 工場과 무역회사와 兵器工場이 그것들을 대신하는 시대로 급변하여 성장해왔던 것이다。

잘 살아보세!로 요약되는 물질적 요구는 절제를 상실한 아노미현상으로 직결되면서 도덕적 견제력을 상실한 각종 不調和의 사회적 모순을 배태하게 하였으며 국민소득 천불이 결코 국민각자의 행복을 균형있게 약속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잘 살아보는 물질적 요구와 그것의 正當化는 합리적으로 정치적 시민적 自由와 그 신장의 유보를 동시에 포함하는 결과가 필으로써 市民的 삶에있어 70年代 특유의 물질적 發展에 대한 욕망과 정신적 고뇌으로부터의 도피를 도모하려는 이상한 제스쳐이기도 하였던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광업남발의 여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은 1년도 심각한 70年代의 傷處로 남겨져 있는바 많은 물 깨끗한 땅, 신선한 공기를 잃어버리게 한 공해요소들은 衣食住의 곳곳에 위협한도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그 보다 앞으로 바라볼 일들에 지혜로 대처하고 용기로 헤쳐나가야 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바 〈政治發展〉이나 〈國民的合意〉라는 말로 압축되는 새 共和國 새 시대에 대한 모든 시민의 자연스럽게 學問的律化의제 열망은 자연스럽게 재일탈락 교수의 복권이라는 오래된 대학가의 소망을해 결할 수 있는 점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시민의식을 합리적으로 견지하는 정향한 의미의 지성인과 그 밑의 많은 노력과 답할이 힘겹게 고동하고 있으며 허탈하 않으면 안되는 결과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문제 역시, 등장과 위협적인 환경을 더 가중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그때 그때의 많적할 수 없는 罪는 絶望이다。 80년대는 역시 우리 시대에있어 가장 엄숙한 우리들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약속할 것이며 和合을 주고 대신 사랑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 대신 인간의 大學을 70년대와 같이 社會的 교육과 討論과 批判의 숲

政治發展과 大學社會

「政治發展」은 民主化의 變革을 의미

지식인은 選擇의 行政의 規制로 自律性 위축돼

大學의 學問·체질상의 한계를 인식, 대처해야 될 전환기

韓相範

〈法政大學長·헌법학〉

「脫政治化」시대는 끝나는가?

지금 우리는 장래를 樂觀만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새로운 轉機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政治發展」이다. 政治學者들이 말하는 政治發展의 개념과 우리가 흔히 듣고 하는 말로써 政治發展의 외미가 얼마나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학자들이 말하는 政治發展이란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과거의 體制에 대한 일단의 비판으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政治發展이란 말을 하는 것

위기에 있었던 지경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사회에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政治發展의 地位〉 시대의 大學의

政治發展이란 새로운 轉機가 주는 충격은 大學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학에서 他意로 배제되었던 학생과 교수가 다시 대학에 돌아온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치발전을 주변에서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돌아온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여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동안의 시련을 위로해야 하겠고, 돌아온 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동안 잃었던것을 찾고 大學이 활기있는 분위기를 되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겠다. 물론 여기서 감상적인 분위기만으로 일은 돼 나갈수 없다. 한스·P·부르이넬이 독일帝國시대의 대학의 市民階級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들도 政治的 無關心과 未成熟상태에 빠져서 정치적 思考能力을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말하고 있다. 빌헬름體制下의 대학교수는 하나의 理想을 상실한채 단지 공

韓國의 大學이 景的으로나 質的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은 60年代이다. 60年代의 시작은 政治的으로 國〈〉시대의 종말에서 한편 大學도 解放後 國內外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성장하여 大學강단에 서게 되는 시기이며, 또 大學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이도 했다. 특히 歸美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新進엘리트가 새로운 學風을 몰고오는 시점적인 진통의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 4·19로 고조된 政治意識이 大學人의 社會參與 또는 政治批判을 고조시키는 시기였다. 특히 5·16후의 軍事政府아래서 韓日國交의 문제는 大學人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절정을 이룬 爭點이 되었다.

그러나 大學은 그 뒤에 制下에서〈批判的 知識人〉이 침묵내지 배척와〈참여지향〉의〈機能的 知識人〉과〈傍觀者的 知識人〉의 시대로 접차 돌입되게되었다. 특히 60年代후반에서 70년대에 이르는 輸出主導型의 경제성장속에서 產學協의 연구비의 배

識人이란 사람의 처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된다. 解放前이나 그 後의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知識人의 受難과 항거의 발자취를 보고 또 거기서 그들의 좌절과 타협의 흔들을 실감해 볼수 있다.

누구나 사회인으로서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批判意識을 자기 생명으로 하는 지식인에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선택의 결단은 피할 수가 없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또한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 宿命인것이다. 이러한 숙명으로부터 편리한 도피구로 찾는 자기 변명의 生活處世로써 흔히 보아온 것은 방관자나 스스로 局外者로서 현실적인 선택의 결단을 외면상으로 유예·연기시키는 생활방식이었다. 결국 방관이 방조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합리의 안일과 안전을 보존하는데는 가장 편리한 것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한 몸의 안일과 안전의 추구는 언제이고 機會主義的이되고 반반주의로 발바꿈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수한 植民地 官僚型 지식인에게서 봐오고 있다. 미련하고 고집센 바보가 되어 고생하기 보다는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처세하기 살자는 것으로 자기의 양심을 가려버린 사람은많다. 그렇다고 여기서 나 자신이 될수도 없는 殉敎者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반드시 애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책임윤리만은 고수하려고 애써야 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얼마전 敎授 한분이 「이런 난국에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 몸조심이나 하고 가만히 있

政治化속에 몽면하는 지식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은 새삼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할 것도 못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시점에서 우리의 大學社會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반성의 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大學의 변모와 오늘의 問題

허한 常套語와 無原則한 便宜主義, 그리고 정치적 無原則主義라고 하는 俗物根性에 사로잡혀 公的 資務를 저버림을 주저하고 있다. 思考와 批判, 이상의 추구와 책임의식이 없는 대학인이나 脫

政治發展과 經濟發展은 합리적인 不動產活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토지이용, 재정금융, 不動產課稅, 거래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동산업자가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洪吉成

〈經濟大學院강사 不動產學〉

報告記

地價상승이 사회복지에 주는 영향 토론

不動產 鑑定評價, 주변학문과 有關

—10차 太平洋 不動產 감정회의를 다녀와서

본교 경영대학원에서도 부동산분제 연문학의 추세가 고조되고 있는 기에 經濟大學院에 不動產學 專攻過程을 설치하고 있음은 뜻있는 것으로 본다.

筆者가 지난 10월1일부터 5일까지 日本「東京」에서 개최되었던「第10次汎太平洋부동산감정회의」에 다녀와서 金鍾璲 경영대학원장의 배려로 간략하게 會議參加보고를 하게되었다.

本會議는 1959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開催된이래 매 2年마다 會員國間에 개최되는 바 1977年에는 카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던다. 금년에는 「人類의 福祉—土地利用과 環境에 미치는 影響—」이라는 主題를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평양지역에있는 美國, 캐나다, 日本,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싱가폴, 서사모아와 멕시코등의 나라에서 85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論題들에 관하여發表 討論이 있었다. ①不動產活動과 經濟發展 ②토지개발과 環境에 미치는 영향 ③토지의 地價動向과 정부의 地價政策 ④상업용, 공업용, 주택용 不動產의 개발과 재개발 ⑤정책의 人類福祉의 조화와 균형문제 ⑥감정의 부동산감정사의 사회적 책임 ⑦감정가격도 농이 主議題 였으며 특히 금년에 중점적으로 논의된것은 地價의 상승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대한 대책 그리고 부동산감정제도와 감정사의 역할과 倫理問題가 강조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감정제도의 현황과 교육문제에 관하여 不動產鑑定評價法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 발표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원과 공인감정사 3백26명이 전반적인 감정업무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한편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토지평가사는 1백52명이 주로 基準地價의 평가및 그 지역내의 補償評價業務分野에서활동하고 있다. 앞의 兩法에 의하여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는 70년초에 비로소 전문적 감정제도가 싹터졌기 때문에 아직 역사가 짧고 감정평가사의 경험이 미흡하고 장기 長期間이 경험자가 부족하며 美國의 1만2천명 日本의 4천명에 비하면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한편 經營學이나 會計學등의 실용학문이 이론및 實務基礎의 定立이나 학문회에 활발한 토론 鑑定評價의 理論이나 실무에 있어 經濟現狀의 다양화와 複雜性이 특히 때문에 鑑定評價結果에대한 상당한 困難現狀이 종종나타난다. 이런 問題의 해결은 學界에서 積極的인 硏究 및 硏究가 정성하여 制度의 改善을 위하여 꾸준한 努力이 요청되고 있다.

不動產鑑定評價는 주변학문인 法律, 經濟, 生態學, 建築, 土木, 都市計劃, 土地利用, 地域計劃등에 관한 전문적인 知識과 豊富한 經驗이 必要하며 항상 最有効利用(Highest and Best use)의 파악을 위하여 모든 知識을 동원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價格(VALUE)으로 集約되는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不動產政策, 不動產管理, 不動產活動에 있어 不動產鑑定士의 조언과 鑑定評價의 필요성이 점점하게 되었다.

큰절 받으십시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회전·드대

고물가시대: 동분서독로도

○「큰 절 받으십시오」 일년간 우리 동인신문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회전·드대」가 새해 인사드립니다.

사실 좀 거북살스런 말씀 올리려구요. 새해 벽두부터 꿱할 다만, 동문 구독료 (연간 4천원) 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여러분이 자주 하시기에 제 무료로 신문을 우송해 드렸습니다만 고물가시대에 살림 꾸려나가기가 어간단찍 찾지 않았을 나다. 본지는 재학생들의 신문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문을 받아보신 분의 아니게 부배들에게 누를 끼친 (?) 결과도 없지 않았던것같은 은데요. 앞으로 학교당국에 상용하는 본지실정에 없어 8면 중 면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은즉, 어쩌수 없는듯 합니다. 아직 예정된입이긴 합니다만 이점 양지하시고 변함없는 애독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연락 ☎8577본사 총무부)

구물장 「房學」이 본격 放學(?)

간신히 법정수업일수에 달겠이 했던 학습의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는 자율적인 「진정한 의미에서의 면학」이 부르짖은듯 해서 흐뭇하기만 국문과의 L교수 많은 학생들이 아침일찍 식사도 못하고 학생들이 어 특강을 비롯, TIME, 영어회화, 일어독강까지 봉강을하고있다고.

종강한지 벌써 한달남짓. 그동안 구물장 쳐이지고 「房學」을 즐기신 「有閑派(?)」제군들은 각성있어야 할듯.

속히 완쾌하시길

○歲暮에 꽃 한 송이를 보내 한토박 애간즉 지난 本社주간이었던 朱舜교수가 지난 10월말 갑면 작스런 와병으로 성모병원에 입원가료중이란 소식을 듣고 동인및 교직원들이 微意를 보내와 백수신만원이 전달되었다는것. 지난 봄 경주 분교로 전임하시게 되어, 20여년간 몸담았던 本社와 家族을 떠나 홀자 지내시는 터 전장이 악화되신 듯. 어서 완쾌하셔 올해도 저희 기자들의 새해인사를 받으실수 있길… 간절히…

韓國大學의 새 方向모색을

韓國大學의 時在를 從橫兩面에서 照明한 새 世代의 새 文學論集

韓國文學의 現住所를 묻는 會心의 力著

韓國文學의 새 方向모색을

흔히 말하길 大學人은 가장선진적이고 대담한 말을 하지만, 大學체질 완고하고 보수적인데도 없다는 말을 듣는다. 깊이 반성해 보고 때로 생각해 보는일이다.

사실 어떤 면에선 위의 말이 솔직하게 수긍된다. 지금 大學에는 다른곳에도 마찬가지겠으나 가장 功利的·計算的·合理的으로 그나름의 思考類型을 가지는 現代가 共存한다. 老年期의 완숙한 人生을 살아가는 世代는 植民地敎育으로 키워나고 儒敎的 傳統속에서 잔뼈가 굵어서 주는것 받아야 할 것도 사상학파 밖으로 뛰면에는 序列的 權威意識. 있다. 中年期 世代라고 해도 약간 사상하며 자기의 위치를 찾는 면이 있으며 그 뒤면에는 역시 自己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제는 權威主義의 思考類型의 인간이었다. 40代 30代는 받아도 당연한것이고 받아야 한다는 수혜감에 부달이 없으며 해방후의 새물결에 과 발전을 시간을 오하기 때문에 조화를 모색 하면서 시간과 느리의 경주와 각개인의 개성있는 創意를 육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식의 차이는 시대의 변천과 그에 대한 적응성을 요구할 때에는 갈등을 낳고 不信에 흐르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전환기에 있어서 학문적 분위기나 대학의 체질상의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學說의 對立보다 學問의 분열이 더 크고, 學問의 자세와 방향의 문제보다 각자의 價値基準과 生活樣式의 차이가 더 큰 간격이 되고 있다. 大學의 虛像을, 솔직히 말하면 그 점진정

해서 한 胡適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싶다. 그는 말하길 「5·4運動은하나의 실상의 표현을 가지고 歷史上의 一大原則을 증명하였다. 이를 歷史上의 公式이라고 이름지을수도 있다. 무슨 공식인가하면, 사무엇 변태적 사회, 국가에서 정치가 너무 부패하고, 民意代表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政治參與의 責任을 반드시 학생에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韓國大學의 새 方向모색을

위해

흔히 말하길 大學人은 가장선진적이고 대담한 말을 하지만, 大學체질 완고하고 보수적인데도 없다는 말을 듣는다. 깊이 반성해 보고 때로 생각해 보는일이다.

사실 어떤 면에선 위의 말이 솔직하게 수긍된다. 지금 大學에는 다른곳에도 마찬가지겠으나 가장 功利的·計算的·合理的으로 그나름의 思考類型을 가지는 現代가 共存한다. 老年期의 완숙한 人生을 살아가는 世代는 植民地敎育으로 키워나고 儒敎的 傳統속에서 잔뼈가 굵어서 주는것 받아야 할 것도 사상학파 밖으로 뛰면에는 序列的 權威意識. 있다. 中年期 世代라고 해도 약간 사상하며 자기의 위치를 찾는 면이 있으며 그 뒤면에는 역시 自己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제는 權威主義의 思考類型의 인간이었다. 40代 30代는 받아도 당연한것이고 받아야 한다는 수혜감에 부달이 없으며 해방후의 새물결에 과 발전을 시간을 오하기 때문에 조화를 모색 하면서 시간과 느리의 경주와 각개인의 개성있는 創意를 육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식의 차이는 시대의 변천과 그에 대한 적응성을 요구할 때에는 갈등을 낳고 不信에 흐르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전환기에 있어서 학문적 분위기나 대학의 체질상의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學說의 對立보다 學問의 분열이 더 크고, 學問의 자세와 방향의 문제보다 각자의 價値基準과 生活樣式의 차이가 더 큰 간격이 되고 있다. 大學의 虛像을, 솔직히 말하면 그 점진정

好評裡 再版 発売 開始!

Published in English

오토피아 〈 Oughtopia

Young Seek Choue

慶熙大学校 総長 趙永植 著

哲学이 고갈된 現代社会의 고민을 풀어줄 20世紀의 새로운 哲学書!

〈人類社会의 再建〉을 저술함으로써 독일철학회장 프리츠-요아힘 폰 린텔렌 박사, 로마클럽 研究責任者 라즐로 박사, 노벨賞 受賞者 허진스 박사 등 세계의 碩学들로부터 絶讚을 받은바 있고, 또 世界人類学会에서는 최고영예의 "人類章"세계대학총장회에서는 "世界学術大賞"을 받은 바 있는 趙永植 박사는 이번에 또 다시 문제의 巨作 Oughtopia를 출간하였다.

本書는 새로운 哲学観 主意生成論에 입각하여 東西古今의 모든 철학을 비판하고 全乘和理論을 개발하여 우주의 実在와 現象的 変化의 심오한 원리를 究明해냄으로써 현대인의 思想的 苦悶을 풀어줄 宇宙観·世界観·人生観을 확립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人生을 고민하고 人類社会의 將來를 염려하는 뜻있는 知性들이여, 20세기 현대의 살아있는 易経이라고 일컬어지는 全乘和理論을 알아 変遷해 나가는 人類歴史와 人生, 그리고 人類社会의 앞날을 바로세워 보자. 값 2,200원

"I read your profound and wise analysis and advice for mankind. Permit me to say that your wisdom is great and that as a modern philosopher you are unsurpassed."

Dr. Charles Huggins, Nobel Laureate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U.S.A.

We now suffer from an overdose of pragmatism combined with generalized but vague pessimism. Now we must catch up on the inner, spiritual domain. What we now need is a spiritual revolution. Here come together with the ideals of Choue, Chardin, U Thant, and of other contemporary spiritual leaders, who can perceive the nature of the human conditions in its totality. Young Seek Choue's work achieves its full significance in helping humanity grow toward a full maturity as a conscious and global species.

Ervin Laszlo
Project Director, UNITAR

An abstract of this important work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Canadian Peace Research Institute and aroused interest throughout the world. Professor Fritz-Joachim von Rintelen, President of the German Philosophical Society and an internationally renowned philosopher, enthusiastically recommends this book as an invaluable critique of modern civilization, as well as a unique guidebook showing in concrete terms the direction in which mankind should move.

乙酉文化社
서울特別市 鐘路区 寿松洞 46-1
電話 74-3515·73-8153·72-9154 対替527069番

Kyung Hee University Press
966-1244
967-3091~5

玄岩社
希臘悲劇
4 3 2 1

1979, 제16회 韓國文學作家賞 受賞作品!
徐基源 長篇小說
朝鮮白磁像 마리아

전쟁이 가져온 윤리적 파탄과 인간성 사실을 적나라하게 분석·고발하여 전후파 기수로 등장했던 徐基源이 4·19와 더불어 한국근대사의 현장검증을 재개하여 오늘의 사회구조를 극명하게 조명했던 「前夜祭」「馬鹿列傳」등 일련의 역사소설에 이어 내어 놓은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

4×7판 340페이지·값 1,700원

韓徹出版社 261-8298 269-4208 267-2723
서울 中區 筆洞3街62-15

드디어 出刊!!
韓相範社會論集
市民思想과 民衆의 復權
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생각해 볼 일들-머리글에서

圖書出版 서래헌 電話: 981-2476

瑞來軒新書
김윤식 평론집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
□작가와 그 세계
□한국 문학 속의 세계문학
□우리 시대의 문학
□문학사적 시각

圖書出版 서래헌 電話: 981-2476

東国의 70年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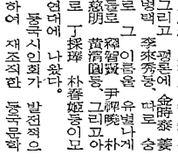
한 70년대초의 학원사태와 중앙학도호국단 출범이후 학생자치활동의 변질과 대학사회의 변모, 획기적 성장을 본동문회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사회문제등, 「校外의 東國」문제등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회고와 평가, 전망과 제언을 위한 특집을 꾸며본다. <편집자주>

東國佛敎의 傳統과 과제

金煐泰 (新羅 白月山 二聖說話의 硏究)

<文理大교수·西洋哲學>

東國文學傳統의 特性


<師範大교수·詩人>

東國詩壇, 現代詩의 자연유로적 의식적 흐름統一에 기여"

양적우세, 질적변모에 커다란 이바지

불교 東國의 鐵甕城 군게 지켜야

과학과의 有機的 關係탐색, 聯關化에 주력해야

紙에 비친 東國 백년의 10년

謹賀新年

母校의 무궁한 發展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한일은행 은행장 정재철

대한모방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섭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고제훈

동남갈포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병식

학교법인리라학원 이사장 권응팔

방림방적주식회사 상무이사 서재희

주식회사삼성출판사 전무이사 김종규

주식회사샾항공 대표이사 백종근

선진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황경석

태양금속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한우삼 <우순>

跳躍과 前進…

지나간 70년대의 10년은 國內外로, 또 校內外로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던 時代였다. 74년 거교적 사업으로 시작한 『고려대장경 영인』 『세계 불교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남긴 佛敎傳統. 78년 鄭在覺 총장 부임이래 「大學의 특성화」로 轉機를 맞으며 東國文化의 오랜 역사속에 유수한 作家를 배출해낸 文學傳統확립, 실험대학 제도, 경주대학의 설립, 해외 대학과의 자매교류 등으로 더뎌되는 획기적인 校勢擴張, 또

校外의 동향

<등창회 사무국장>

尹 天 泳

國內外的으로나 校內外的으로 多樣化하기만 했던 70년대의 한 매듭이 歷史의 페이지로 기록되고, 이제 새 역사 창조를 위한 跳躍의 發足 80년대 새아침을 맞았다.

이는 우리 동국인들의 活動을 재발견 시킴으로써 校內外의 관심을 집중하고 他校의 新興 虛勢를 견제하는 한편 近代化의 조류속에서 母校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好機가 되고 있다.

특히, 母校와 同門 自身을 위육, 로스엔젤스 위싱턴등 美洲지역 동창회의 후배들을 위한 각종 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학생들의 活動을 재발견 시킴으로써 校內外의 관심을 집중하고 他校의 新興 虛勢를 견제하는 한편 近代化의 조류속에서 母校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好機가 되고 있다.

특히, 母校와 同門 自身을 위육, 로스엔젤스 위싱턴등 美洲지역 동창회의 후배들을 위한 각종 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學生들의 活動을 재발견 시킴으로써 校內外의 관심을 집중하고 他校의 新興 虛勢를 견제하는 한편 近代化의 조류속에서 母校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好機가 되고 있다.

1908년 「明進」이 첫 卒業生을 배출하면서 발족한 우리 同窓會 (당시 庶學會) 의 근본정신은 언제나 「同門相互間의 친목을 통해 母校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全東國人의 친목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들 母校발전에 돌대 기여함으로써 東國의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하자」는데 의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쉽게 「實現」의 꽃을 피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무사 안일주의는 자포자기 늪에서 헤매었던 터였다. 이 때 70년대의 황금기를 속절없이 同窓會 活動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불과 수년전인 70년대 초부터다 할 수 있다.

이에 反해 지난 70년대의 동창회 활동은 「정체」부터 탈피를 위한 말으로 일찍전 동부럽게 뛰어졌다. 그것은 無形에서 有形으로의 창조적 고동과 단결력 상태에서 서로 연결되는 同窓會로의 뜻이다. 이미지를 새신하는 작업이었다.

그 첫번째 試圖가 東國을 빛낸 同門을 찾아내서 매년개최되는 동문의 밤을 통해 표상하는 일이었다. 모교에와 同窓의식을 해서는 급선무가 東國中興의 학풍진작과 스포츠활성화등을 위한 「기금조성의 붐」을 들 수 있겠다.

무릇 세상에는 별이별 모임이 다있고, 草綠이 作黨하여 죽상도 학을 일삼는 비생산적 비단체적 인 행위가 없지 않았던것도 사실이다. 모임을 結成하여 朋黨을 이룬 것은 世俗的인 단순관념이 아닌 것은 「東國의 발전에 東國人이 해야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具體化리킨 同門들간의 숙구운동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선의 모두가 70년대에 갖추어지면서 동국을 중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부분적인 시설로서 도서관 육원의 어학실습실의 완공과, 1BM1130型 8K 컴퓨터가 도입계획이 이뤄지고 전자계산소가 설립되었고 또한 10층의 없이다. 원만이나라 경영대학원의 인가(73年) 와 교육대학원의 신설79年) 및 전산원 설립 (75年) 등의 이 모든 학대가 70年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 5월 14일 제1회 교육보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래 (수제=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순결교육문제) 1979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부의 일선교육의 이론과 실제들 조화하는 중상당에서 입학식과 졸업식과 배출시키고 있었다.

졸업 75학년도의 40명에 이어 76년도에 40명, 77년도에 60명, 78년도에 1백명의 중원및 중파가 있었으나 학계 79학년도의 6백50명, 80학년도의 5백40명의 중원은 동학의 모집정원을 2천5백명에까지 올렸으며, 9개단과대학, 64개학과로서 어떤 타대학교와 비교해도 앙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시설의 확장이라는 면에서도 지난 10년은 인동의 응장한 동학을 가진 것이다. 본관및 도서관 편진관 (석조관) 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물은 이기간에 건축되어 진 것이다.

1969년 11월에 착공된 元興館 (공관) 이학, 70년도 9월에 낙성을 보았으며, 1971년5월에 기공된 학생회관은 71년도 12월에 완공되었다.

<佛敎大敎授·佛敎學>

權 奇 悰

6백평으로 기타 옥지를 합치면 3천여평으로 말의실· 휴게실을 위시한 지상층이 2 2평이나 되며, 신축된 실내체육관은 1천5백평에 달하여 10개의 연구실과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각종 경기는 물론 교내의 큰행사는 이곳에서 하게 되었다. 8백여석에도 미치지 못한 동국의 교체학장은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된불만 아니라 고려대장경의 영인완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동국의 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10년대에 걸쳐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된 고려대장경의 영인 완간을 촉발을 경주해 단시일 내에 48책의 방대한 작업을 완수한 것이 76년 5월이다. 이 큰 사업의 완성은 당시의 원산 신문적 정보와 교수·학생의 류들 시도하여 일치기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의 경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경연을 추진 중인 것만도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 일본의 다이쇼대학을 들 수있다. 일본의 79년에 신설한 경주불교는 동국의 세계적 수가 아닐수 없다. 서울만이 아니 전국 어디에서도 (특히 영남지방) 동국의 건하는 불을 만날수 있게되었다.

70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동국의 체육활동은 그 종흥을 다짐하고 분발하기 시작하여 야구, 축구, 농구, 럭스틸, 스케이트, 권투, 등 각 분야에서 우승·준우승을 다투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동국의 체육은 이나 탁대학도 감히 양부수 없는 수준에 이른것이다. 이어서 그 투각을 졸업생은 각분야에서 그 투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고, 동창회의지부만도 1백20개를 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사법·외무·행정 등의 고등고시에 날로 그 합격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의 동국은 동국 80년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목한만한 전화점이 아닐 수없다.

<法政大敎授·政治學>

鄭 用 吉

大學社會의 변모

1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말을 한다.

우리는 이제 「10·26 大統領弑害」事件 하나만으로 難攻不落의 維新憲法을 改正하기 위해 國會 憲法特委가 構成된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제 明年부터 初·中·高等學校의 敎科書에서 維新의 내용을 빼어 버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이제 「學園의 自由」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나마 말을한다.

이미 알고있는 바와같이 지난 10年의 세월은 本校에게는 물론 우리나라의 각 大學들에게 깊은 强要한 時期였다.

4·19로 시작된 1960년대는 學生들의 社會參與로 수년간 을 正常的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早期放學을 하는 事態를 빚었었다.

1972年 「대통령 緊急措置令」을 신설한 이른바 維新憲法이 公布되면서 시작된 유신체제의 출발은 결정짓는 큰 轉機가 되었다.

<法政大敎授·政治學>

鄭 用 吉

1974년 1월8일부터 75년 5월13일까지 대통령 緊急措置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發動하여 一學生의 正當한 이유없는 授業 및 試驗拒否等의 禁止, 校內의 集會 示威의 原則的 禁止, 文敎部 長官은 위반학생의 退學, 國立學校 廢校處分을 가능케 (제4項) 하도록 하였고 「憲法에 관한 一切의 반대, 비방, 改正, 廢止等 주장을 금지하고 學校長의 事前許可를 받았거나 의례적 非政治的인 活動을 제외한 學生의 集會 示威 또는 政治關行爲를 禁한다」(제9호) 고 하였다.

이에대한 學生들의 비판의 소리는 높아져 이른바 「學園事態」로 유발하여 지난 74년이후 제적된 學生은 전국 40個校에서 7백86명이며, 그가운데 本校의 학생중 제적된 학생수는 18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70年代의 大學社會는 한편으로는 유신체제비판과 관련하여 빚어진 不合理, 보이지 않는 無秩序가 나타나면서 「데카당스」한 思考가 蔓延되었고, 여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輸出指向的 경제정책과 물질만능의 사회풍조가 겹쳐 大學은 마치 人力資産

<佛敎大敎授·佛敎學>

權 奇 悰

6백평으로 기타 옥지를 합치면 3천여평으로 말의실· 휴게실을 위시한 지상층이 2 2평이나 되며, 신축된 실내체육관은 1천5백평에 달하여 10개의 연구실과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각종 경기는 물론 교내의 큰행사는 이곳에서 하게 되었다. 8백여석에도 미치지 못한 동국의 교체학장은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된불만 아니라 고려대장경의 영인완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동국의 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10년대에 걸쳐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된 고려대장경의 영인 완간을 촉발을 경주해 단시일 내에 48책의 방대한 작업을 완수한 것이 76년 5월이다. 이 큰 사업의 완성은 당시의 원산 신문적 정보와 교수·학생의 류들 시도하여 일치기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의 경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경연을 추진 중인 것만도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 일본의 다이쇼대학을 들 수있다. 일본의 79년에 신설한 경주불교는 동국의 세계적 수가 아닐수 없다. 서울만이 아니 전국 어디에서도 (특히 영남지방) 동국의 건하는 불을 만날수 있게되었다.

70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동국의 체육활동은 그 종흥을 다짐하고 분발하기 시작하여 야구, 축구, 농구, 럭스틸, 스케이트, 권투, 등 각 분야에서 우승·준우승을 다투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동국의 체육은 이나 탁대학도 감히 양부수 없는 수준에 이른것이다. 이어서 그 투각을 졸업생은 각분야에서 그 투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고, 동창회의지부만도 1백20개를 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사법·외무·행정 등의 고등고시에 날로 그 합격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의 동국은 동국 80년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목한만한 전화점이 아닐 수없다.

校勢擴張의 문제

同窓會館건립이 80年代 課題

健實財團추구는 순수한 母校愛의 發露

<佛敎大敎授·佛敎學>

權 奇 悰

6백평으로 기타 옥지를 합치면 3천여평으로 말의실· 휴게실을 위시한 지상층이 2 2평이나 되며, 신축된 실내체육관은 1천5백평에 달하여 10개의 연구실과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각종 경기는 물론 교내의 큰행사는 이곳에서 하게 되었다. 8백여석에도 미치지 못한 동국의 교체학장은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된불만 아니라 고려대장경의 영인완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동국의 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10년대에 걸쳐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된 고려대장경의 영인 완간을 촉발을 경주해 단시일 내에 48책의 방대한 작업을 완수한 것이 76년 5월이다. 이 큰 사업의 완성은 당시의 원산 신문적 정보와 교수·학생의 류들 시도하여 일치기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의 경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경연을 추진 중인 것만도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 일본의 다이쇼대학을 들 수있다. 일본의 79년에 신설한 경주불교는 동국의 세계적 수가 아닐수 없다. 서울만이 아니 전국 어디에서도 (특히 영남지방) 동국의 건하는 불을 만날수 있게되었다.

70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동국의 체육활동은 그 종흥을 다짐하고 분발하기 시작하여 야구, 축구, 농구, 럭스틸, 스케이트, 권투, 등 각 분야에서 우승·준우승을 다투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동국의 체육은 이나 탁대학도 감히 양부수 없는 수준에 이른것이다. 이어서 그 투각을 졸업생은 각분야에서 그 투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고, 동창회의지부만도 1백20개를 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사법·외무·행정 등의 고등고시에 날로 그 합격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의 동국은 동국 80년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목한만한 전화점이 아닐 수없다.

東國人의 밤·기금조성등 活性化에 주력

校勢擴張의 문제

同窓會館건립이 80年代 課題

健實財團추구는 순수한 母校愛의 發露

<佛敎大敎授·佛敎學>

權 奇 悰

6백평으로 기타 옥지를 합치면 3천여평으로 말의실· 휴게실을 위시한 지상층이 2 2평이나 되며, 신축된 실내체육관은 1천5백평에 달하여 10개의 연구실과 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각종 경기는 물론 교내의 큰행사는 이곳에서 하게 되었다. 8백여석에도 미치지 못한 동국의 교체학장은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된불만 아니라 고려대장경의 영인완간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동국의 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10년대에 걸쳐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된 고려대장경의 영인 완간을 촉발을 경주해 단시일 내에 48책의 방대한 작업을 완수한 것이 76년 5월이다. 이 큰 사업의 완성은 당시의 원산 신문적 정보와 교수·학생의 류들 시도하여 일치기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의 경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경연을 추진 중인 것만도 미국의 아이오와대학과 일본의 다이쇼대학을 들 수있다. 일본의 79년에 신설한 경주불교는 동국의 세계적 수가 아닐수 없다. 서울만이 아니 전국 어디에서도 (특히 영남지방) 동국의 건하는 불을 만날수 있게되었다.

70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동국의 체육활동은 그 종흥을 다짐하고 분발하기 시작하여 야구, 축구, 농구, 럭스틸, 스케이트, 권투, 등 각 분야에서 우승·준우승을 다투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동국의 체육은 이나 탁대학도 감히 양부수 없는 수준에 이른것이다. 이어서 그 투각을 졸업생은 각분야에서 그 투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고, 동창회의지부만도 1백20개를 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사법·외무·행정 등의 고등고시에 날로 그 합격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의 동국은 동국 80년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목한만한 전화점이 아닐 수없다.

本社記者가 선정한 79 東國8大 ㅌㅅ

79학년도 本校 간행물 현황

◇敎授 16名 대거 공채

人事行政에 있어 획기적 근대화로 평가되는 교수공개채용원칙을 확정, 지난 2월15일에는 학력, 연구경력, 학위를 기준으로 16명의 교수를 경상, 공대중심으로 충원시키므로서 공개채용으로 인한 대학의 질적향상에 큰계기가 되었다.

◇한국불교전서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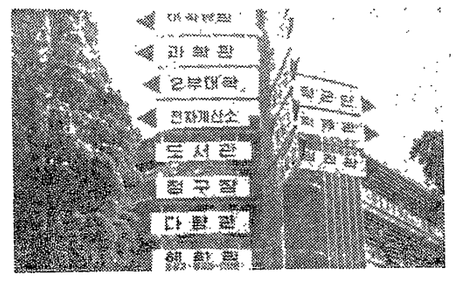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불교전서」가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있던 불교관계저술, 문헌을 총망라, 본교 불전간행위원회에서 제2권까지 발간, (전20권 完刊예정) 한국불교사상사의 체계확립과 그중흥에 큰힘이 될 것이다.

◇경주대학 기공식

17만여평의 대지위에 세워질 경주대 기공식이 지난 6월9일 이사장, 총장이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83년까지 서라벌 터전에 완공될 경주대학 건물은 올해부터인문, 사회학관에 신입생을 수용할수있도록 현재 90% 진척중에 있다.

◇각 건물 고유 명칭

73년의 유수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름을 결정하지 못했던 본교 캠퍼스 각건물들의 고유명칭이 「學統계승」이라는 대원칙아래 확정되었다. 석조관은 明進館, 본부를 대학본관, 교양학부건물을 惠化館, 사대건물을 學林館, 복지회관을 茶香館, 선수합숙소를 金剛館, 1·2·3공학관 전체를 元興館으로 개칭, 새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입시요강 변경과 실험대실시

본교는 지난 9월13일 실험대학제도를 승인받고 올해부터 법정대와 경상대학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同대학의 경우 80학년도부터 대학별로 신입생을모집하게 되었으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선택이었던 수학(I)이 필수과목으로 선택과목 국사 폐지등 각각 변경되었다.

◇휴교조치및 제적학생 복교방침

10.26사태로 인해 27일부터 전국대학이 휴교에 들어감으로써 70년대의 4번째 휴교조치가 되었다. 이번 휴교로인해 일부 행사가 무산 혹은 연기가돼 많은아쉬움을 남겼으며 1회로 정치발전에따른 학원자율화로 긴급조치관계 제적학생들의 복학이 신학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사유임및 이사장선출

지난 8일에 있었던 제35회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진 전원을 유임시키고 제12대 이사장에 朴泰宗스님이 추대되었다.

◇1만 등국

올해 본교 입학정원이 대폭증원, 7천 등국에서 「1만등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되었다. 경주대의 4개학과와 2부대의 2개학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총 540명이 증원되어 대등국의 발돋음을 이루게 되었다.

企劃·規模등 향상돼야

79학년도 本校 간행물 현황

佛敎 宗立學校들의 면모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형태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외형적 찍찍적 표현이 그러한 특성을 띄우 두드러지게 암시할 수 있는 극적 표현의 큰 예로 그간의 활발한 譯經事業등 출판사업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그 어느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를 들 수 있다. 금년도 본교출판사업의 특성을 살펴보자.

本校의 校內刊行物과 他校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現代佛敎新聲, 佛敎思想叢書, 한국불교장경등 佛敎의 전문적인 저작중심의 宗敎偏向的인 출판사업일 것이며 또 하나는 종합대학교로서 출판사업 규모의 부진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2、79年度 刊行書와 問題點

78년의 14권 간행에 이어 本校수물 筆頭으로 새로 11권을 간행, 추가했으며 朝鮮佛敎小說選 독특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불교 대중화를위해 1백권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現在 25권의 간행을 마쳤다.

佛敎文化硏究所

해마다 불교의 弘揚및 불교학술문헌의 발표는 차원높은 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佛敎學報의 第16輯 발간과 아울러 학계의 요청에 따라 그간 간행해온 佛敎學報를 影印本으로 上梓했다. 한편, 新羅, 百濟의 佛敎思想에 관한 발표된 기존 논문을 수집 「三國時代의 佛敎思想」이라는 제목으로 출판간행했다.

연경원

총2백80책 규모의 完刊예정인 한국불교장경 4冊을 발간했으며 이것은 순 한글로 번역 대장경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업이다.

韓國文學硏究所

東國文學전통 중흥의 제1단계 작업으로 한국문학총서를 간행, 제1권 「한용운」및 2권으로 「서정주」를 간행예정으로 있다. 이상 살펴본바와같이 활발한 출판사업을 벌이는 것이 없는가하면 일부 연구기관을 정기논문집도 발간치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근년도 출판물의 비율을 보면 연경원에서는 「韓國經錄」「佛敎思想叢書」를 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내문제와 기금조성등제로 인해 명년도로 미뤄졌음에도 目錄에서와 같이 校內 刊行書중 불교서적이 73%를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서적들은 佛典刊行委員會 한국불교전서유원희 불교문화연구소, 역경원등 전문적이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의 편찬인데 비해 기타 나머지 출판물은 본교 출판부에의 한 각 단과대, 대학원, 연구소등 그지고있는 형편이다. 譯經院, 불전간행위원회등이 막대한 기금조성과 아울러 고도의 전문지식을 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년의 단과대에서 간행되어 오던 정기논문집 「師大論叢, 東國農林, 行政論叢」등이 휴폐한 筆陣을 갖추고 있으면서 재정문제등으로 안타깝게 중단을 하고있는것은 학교 지원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정기논문집등 해당기구에서 간행되는 연평균 25권의 간행물이 10종권이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과는 달리, 올해 새로이 발족한 한국문학 연구소의 한국문학총서 간행과 佛敎文化硏究所의 佛敎學報 影印本의 발간등은 활목할만한 출판성과라 할 수 있겠다. 허나 78년도 校內刊行書와의 비교에서는 그 내용면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그 의욕적인 면에서 작년수준의 80%에 머물러 他校의 출판량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본교 출판사업은 이상과 같은 부진과 어려움을 극복, 우수한 교내·외의 연구업적을 집성, 다양한 연구결과와 학술정보의 전달이 아쉽다. 또한 재학생들의 교양에 유익한 논문적인 교양서적의 간행이라든가, 일반상업출판이 할수없는 대학출판물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요망된다.

79年度 校內 刊行書

書名	발행처	版型	비고
現代佛敎新聲			
⑮行三六五日經言選記敎待界化	佛典刊行委員會	文庫版	著譯著著著

除籍學生 신학기 復校방침

鄭總長, 본지 記者會見서 밝혀

學則改正 작업 진행중

「發展沮害요소」 과감히 排除

鄭在覺총장은 80학년도를 앞두고 본사와 가진 新年記者會見에서 「建學理念에 입각한 새로운 東國人像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자」며 「民族精神에 입각하여 구국의 사명으로 세워진 본교는 知性의 활화산을 불붙여 학구에 연중무휴의 대학이 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총장실에서 가진 본사 韓萬洙관련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鄭총장이 밝힌 것이다. 이자리에서 본교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現下 學園의 民主化문제에 대해서도 「정직발전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고, 제적학생들이 복교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회부활문제는 몇가지 방안을 구상중이지만 실현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 발전에 대해서 鄭총장은 「학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나 전 동국인이 협력해 중지를 모아 부흥하다」고 말했다. 〈金光 2면참조〉

安孝煥군(行政·4) 등 4명 各種 考試에 최종합격

지난 7일에 발표된 총 3명이 합격되었다.

무처시행 제23회 行政高等考試 최종합격자에 본교에서는 안효환(行政·4), 김현태(대학원 행정학과)등 3명이 합격한 제15회 技術고등考試에는 1차시험에 합격한 14명중감태수(社學·4)군만이 최종합격하였다.

경주대, 원서교부 21, 최종합격자발표

지난 12월28일부터 1월11일(金)까지 본교 교무과와 경주대학교학과에서 교부하고 5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및 면접고사만 전형되는 경주대학의 1차 합격자는 14일 이며 16일 면접고사를 치른후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4개서클」 冬季奉仕 활동

現住民적극호응, 성공리에

이날 회견은 오후 4시부터 崔世和학생처장, 裵鍾根기획실장, 본사 洪起三주간이 배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7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東國정신을 되새겨보고 학원의 자율화방안과 제적학생의 복교문제, 80년대 본교의 중·장기계획등이 거론되었다. 특히 학원의 자율화방안에 대해서는 「복교문제는 문교부의 숙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신학기에 추진될것으로 예상하며, 학칙개정은 학생처 부처가 있으며 제반문제를 상세하게 재검토해서 보완할 생각이다」라고했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은 제시 학생회로 화원하는 방안과 학부 전담체제를 그날부고 간부 선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등 몇가지 방안을 구상중이나 실현단계에 들어가서야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본교의 시설확충계획에관해서는 본교전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선 내년에는 「대학원건물을 공할 예정이며, 여학생회관이 소규모나마 지어질 것같다. 과학관이라 2층을더 올려서 실험대학에 대비하고 「재정적으로 첫단계로 「대학부속병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경주대학생 기숙사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수공채원에대해 언급, 「단순히 인사정책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정책등 일체의 부당한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실력있는 분을 여의할수도 있다」고 답석을 달았다. 금년도 교수채용인원은 「16명정도가 적정선이지만,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30여명을 채용할예정」이라고말했다.

그밖에 본교의 발전장애나 시정사항에대하여는 「총장이 비전을 세우고 강력히 밀고나갈 수 있는 힘이 그동안 학교부동하게 「앞으로는 교내·외의 학교행정에서 보이는 부조리와 봉합리를 제결하는 최대한의 힘을기울일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東國人의 밤」 盛況

同門에 축하패 전달

본교 동창회(회장=崔載九의원)주최의 「동국인의 밤」이 회관 강당에서 열렸는데 지난 19일 앰버서더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校歌제창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全 5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1부 「임시총회」는 柳周聯 동창회 부회장의 東國발전및 학교 부흥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崔회장의 회무보고 및 인사, 鄭在覺총장의 학교발전상황개관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축하패수여식」에서는 蔡鍾根·鄭道晋·鄭在覺·鄭在覺·鄭在覺

選手스카웃을 계기로 點檢한다

◎ 한 학교의 명예와 교위 선양을 위해 스포츠진흥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을 것 같다。때로는 학회에 한 기발의 활약을 때로는 슬픔보다더한 비통함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던 동대 스포츠。어느새 열기와 땀으로 얼룩졌던 한해가 또다시 지나갔다。이제 작년 한 해동안의 동대 스포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한편 선수스카웃을 계기로 희망찬 동대 스포츠의 내일을 점검해 본다。

◎ 동대 스포츠의 내일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註>

『常勝』을 다짐하는 東大스포츠

야구

한마디로 성공과 도약의 한해였다。작년8월23일 폐막되었던 79년 대학야구 추계연맹전에서 본교는 장호 고려대학을 꺾음으로 첫판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어 한양대학까지 물리침으로써 대학야구계에 돌풍을 몰고 왔으며 우리 東國人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 대회에서 본교는 강호 고려와 한대를 제압해 예상을 뒤엎고 강력한 우승후보로 등장했었으나 「강팀에는 강하고 약팀에는 약하다」는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약체라 할 수 있는 건국대학등에 분패함으로써 준우승에 그쳤던 것。

작년 한해동안 통산 23전12승 11패의 전적을 기록했던 야구는 역시 타력은 강했으나 마운드가 안정되지 못했던 잔이 있었다。

타력면을 보면 본교는 79년도 타격 20걸에 洪浮萬 金城漢 韓大化등 3명이 들어갔고 타점부문에서도 朴田愛이 많당 마크했으며 金炫燾이 4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작년 한해동안 크게 클로즈 업된 선수들은 역시 김성한 한대화동 중심타선 이었는데 특히 한대화는 新人이었음에도 상당히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었다。

현재 25명의 선수중에서 金東鎭 金炫河등 2명의 선수가 졸업을 하는데 이들 두선수들이 졸업해도 동국야구의 전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같다。

그동안 야구부는 본교 대표로서 연습을 해왔었다。

1학년생들의 체육수업시간과 겸치는 수가 있어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에 본교 실업팀에다 야구부 전용구장을 건립하게 되어 앞으로의 훈련조건이 호전함으로 배전의 성과가 기대된다。야구장 공사는 이미 정지작업을 시작했고 공사부지의 지질조건이 좋아 수개월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동국야구의 전력강화를 위한 일대 전기가 될것 같다。

한편 올해에 새로이 들어올 선수들의 스카웃 현황을 보면 79년도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바 있는 고교 강호 광주상고에서 강정남 김치성 박병권등 3명을 비롯해 작년 고교야구 통산타격 1위의 타격왕 부산고교의 김민조선수, 네고있는 강타자들을 비롯해 작년 1회 휘문의 1회 홈런의 주인공 경남상고의 서정환선수등 막강한 선수들을 데려오게 되어 타격면에서는 동국야구의 황금기가 될 것 같다。또한 이에 못지않게 마운드를 보완하기 위해 삼윤고교의 정상남 투수 김낼에 불과고교야구의 정상남 투수 김해 삼윤고교의 정상남 투수 김잘 알려져 있는 경남상고의 이문원선수등이 들어오게 되어 타격보다 강력한 투수진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그간 활발했던 야구원정가 약 2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제는 정상 탈환을 위한 일만이 야구부에 남아 있다고 하겠다。

축구

본교 축구부는 작년에도 춘계연맹전, 대학축구선수권 대회등에서 꾸준히 4강까지 진출했었다。

그러나 본교 축구가 항상 「득점은 꼴게터가 없는데다 체력 열세까지 겹쳐서」라고 불수강에서 좌초되는 주원인을 보완한다면 전국 대학축구선수권 대회등에서 4강까지 진출했었다。

그러나 본교 축구부는 작년 2천여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어 정상정복에의 집념에 불타고 있는 선수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농구

농구의 경우는 작년 한 대학선수권 관왕 과 재작년을 주로 전성기 쟁탈 전국 고교 농구 대회 등의 우승을 차지하는 위주로 선수들을 보면 작년 본교가 개최한 종장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던 이영희선수 이영철선수 김동식선수에 뒤이어 또다시 등장한 김동식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선수이다。

또한 김영희 선수의 장거리 슛팅력, 김은선 단거리에 전재용, 이현구등 4명의 선수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내 여왕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한편 김영희 선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상희 본교장인 노트웨이에서 장도있는 전지훈련을 마친 바 있어 작년 12월 시상식에서 그녀의 선과가 컸다。

또한 그녀는 대우실업의 하선수에 뒤이어 또다시 등장한 이영희선수가 그녀의 뒤를 따르게 되어 가능성까지도 높음의 엿보여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그녀는 한 가능성도 충분히 실현 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키부는 김일동선수를 비롯, 한상권, 김동태등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들의 작년 성적을 보면 김일동선수 (노르딕) 가 국내 1、2위를 다투고 있고 한상권 선수 (활화산) 김동태 선수 (활화산) 가 각각 개인 2、3위를 다투고 있다。그런데 본교 스키부는 현재 있는 단독연습, 종점 육성시키고 있는 만큼 스키부 선수들이 도전의 최적 조치로 각종대회 때마다 꼭 수명의 우승자를내는등 관록을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본교 체육관서 열린 체력열세도 만회키 위해이번에 축구부는 1백87㎝의 장신인 체육고교 송철모 선수와 역시 1백80㎝의 장신 허찬, 현재 북동, 2명의 선수 그리고 김정식 김선우등 여러명을 새롭게 스카웃하게 되었다。

따라서 팀 전체 전력면으로 보아 충분한 보강을 한 것으로평가할 수 있어 체력에 밀려 고전하거나 끝 게터 부족으로 인해 득점 찬스를 놓치는 등 이제까지의 비교적 부진한 경기는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축구는 무엇보다도 단결된 팀워크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가능하게 된 개인기가 상호 보전됨으로서 훌륭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팀 기술에의 발을 착실히 내딛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축구부에서도 야구부처럼 축구부원들에게 현재까지 약간에 만족한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나 본교가 해서 우리나라 울이라고 그러나 본교가 해서 우리나라 선의 본교가 아울러 안되다。「하말라야에는 언제나 훌륭한 추위와 폭설등 악천후와 눈사태의 위협을 안고 있다。다만 어려움과 겨울에 비해 불편 날씨가 좋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이는 본교 피니스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에 생존하지 않는 황홀한 세계, 수만톤의 눈사태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경관의 세계 히말라야, 그 8천㎞의 험난한 공기와 사과 이어장이 빛나는 사발들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이상의 더 큰 매력은 없을 것이다。

세계의 지붕, 제3의 극지라고 불리우는 히말라야는 지구상의 7천㎞이상의 모든 봉우리가 운집해 있는 만년설의 산맥으로 산사나이들의 꿈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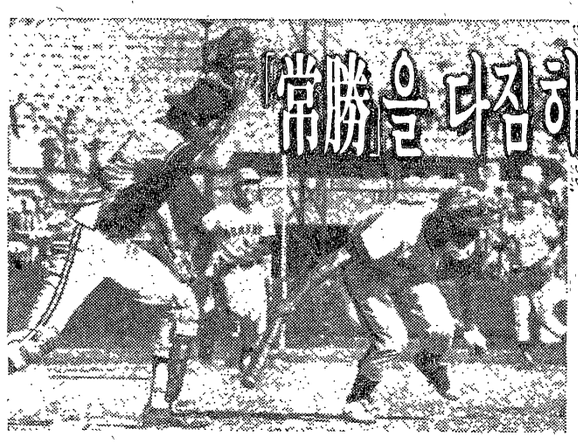
본교 韓相範교수의 社會論集「市民思想과 民衆의 復權」이 긴급조치 9호의 해제와 더불어 드디어 서울 瑞來軒에서 나왔다。본서에는 제1부 人間尊嚴思想의 흐름을 찾아서, 제2부 인간의 양심과 정신의 자유, 제3부 민중과 정치와의 거리, 제4부 산업화시대의 문제와 과제, 제5부 시민정신의 현주소 등 정치와 인간생명의 존엄에 관해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또 韓교수는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민족적 현속에 자기를 보존해야하는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瑞來軒刊・280面・2,500원>

佛敎學報 제16집
佛敎文化硏究所 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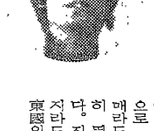
본교 佛敎文化硏究所에서는 佛敎學報 제16집을 간행하였다。필자인 12명의 교수와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張元圭「圭峰의 敎學思想과 二水・四家의 華嚴宗再興」李鍾益「韓國佛敎諸宗派成立의 歷史的考察」金煐泰「五敎九山에 대하여」金雲學「十牛頌에 대한 考察」睦楨培「受戒儀度의 一考」高翊晋「白蓮社의 佛敎傳統과 天頊과 著述問題」吳亨根「中國 寶基法師의 敎判思想」金英吉「金鍔論과 無情佛性論」鄭泰爀「無上瑜伽密敎護摩儀軌의 構造의 意義」洪潤植「三國遺事와 佛敎儀禮」元義範「韓國現代佛敎學의 정립을 위한 菩提의 因明的 의미」金鎔貞「한국불교학의 정립을 위한 논리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市民思想과 民衆의 復權
韓相範 著



탈리 연재를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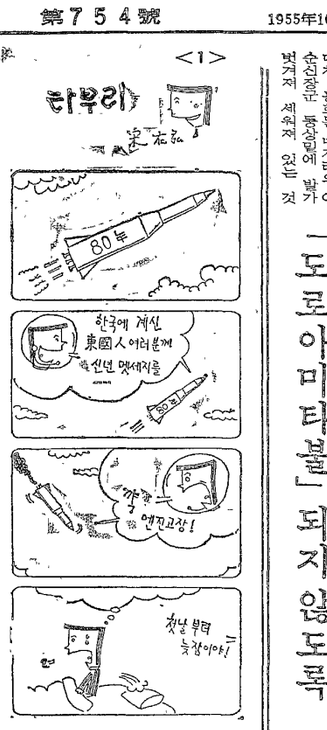
宋在弘 〈慶林大 일문과〉



새해 아침의 조심스런 만남
「도로아미타불」되지 않도록

어떤 힘이 나를 이앞에까지 서게 하였는지 마치 광화문 네거리의 이순신장군 동상같이 벙거져 서있는 것 같은 기분을 내내 떨쳐버릴 수가 없읍니다。80년대를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여러분 앞에 나선 이 조심스러운 만남이 앞으로 어떤 즐거움한 열매마도 맺어야 할것 같습니다。지나간 욕심이라 할 지라도 「타부리」들 우리 東國의 깃발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부단한 채찍과 땀으로 희뿌옇게 뽀드득 거리며 밟자욱을 찍어 나가듯 조심스럽고, 무뚝하고, 정성으로 네개의 화면에 정성을 쏟아 넣고 갖습니다。언제나 그러했듯이 새해 벽두에서 서 쌓아 올렸던 돌들이 그 꿈을 먹으며 눈을 맞고 섰은 한 겨울의 나의 시작이 벌써 나 스럽게 내려버린 作心三日로 점철된 나의 70년대를 미련없이 보내 버리고 비록 도로아미타불이 또 되고 말지라도 이 하나의 파정을 축성하여 맞어 가겠습니다。

80년의 마을을 새로이 다지고 우리 東國人 여러분의 作心이 부디 작 풍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東國과 함께 호흡하게 될 우리「타부리」의 부푼 가슴에 「도로아미타불」의 낭인이 찍히지 않도록 많은 아껴을 바랍니다。모두 우리의 날의 흐름을 재빨리 적응시켜 가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축구 숙원은 만남을 통한 성공여부 달려
「쉘몰과」고용에 성공하면 韓國은 3차례의 실패·日本서 성공

沈聖崔

히말라야는 그동안 체육관의 김진영선생이 혼자 고군분투 사실상의 코오치로 맹활약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선수층도 두텁게 보강하고 새로이 들어올 선수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훈련을 착실히 시킨다면 황 김 두선수에 이어 계속「4강의 정표」을 누빌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테니스부는 현재 여자선수들 만을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한해수확을보면을, 대학테니스연맹전에서 정정엽·박은이조가 맞당 우승을 차지했고 역시 박 두선수가 동대회 단식 3위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한 바있다。

현재 국내테니스계의 동향을살펴보면 남자선수들이 사상 처음 출한는등 기염을 토하고 있어 남자 선수들의 쭌점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인데 지금 남자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진국대학이나 명지대학등을 들수있다。이들은 두 우리나라 테니스계의 쌍대자들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교도 여자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선수들에 대한 발탁도 검토 될 실현한다면 「금상첨화」격이 될 것 같다。

빙상·스키

빙상은 작년에 이어 김영희 선수 (女) 의 독무대로 봐도 될 것같다。김영희선수는 현재 1천5백㎞에서 2분22초6으로 3천㎞에서 4분52초 F으로 두 종목 합목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주목기로 하는 선수이다。

또한 김영희 선수의 장거리에 심상일, 김은선 단거리에 전재용, 이현구등 4명의 선수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내 여왕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한편 김영희 선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상희 본교장인 노트웨이에서 장도있는 전지훈련을 마친 바 있어 작년 12월 시상식에서 그녀의 선과가 컸다。

또한 그녀는 대우실업의 하선수에 뒤이어 또다시 등장한 이영희선수가 그녀의 뒤를 따르게 되어 가능성까지도 높음의 엿보여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그녀는 한 가능성도 충분히 실현 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키부는 김일동선수를 비롯, 한상권, 김동태등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들의 작년 성적을 보면 김일동선수 (노르딕) 가 국내 1、2위를 다투고 있고 한상권 선수 (활화산) 김동태 선수 (활화산) 가 각각 개인 2、3위를 다투고 있다。그런데 본교 스키부는 현재 있는 단독연습, 종점 육성시키고 있는 만큼 스키부 선수들이 도전의 최적 조치로 각종대회 때마다 꼭 수명의 우승자를내는등 관록을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본교 체육관서 열

蹴球
체력 열세에 長身選手로 보강

그런데 이들 두 대표부가 모두 졸업을 하게 되어 단 2명의 소수정예로 그간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이들에 대해 그 뒤를 이어줄 우수한 선수 확보가 매우 커다란 문제로 떠두되어 현재 아세안 대회 메달리스트인 체육고교의 김수영 (웰터급) 학생선수 권대회 우승자인 김학선선수등이 스카웃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권투는 그동안 체육관의 김진영선생이 혼자 고군분투 사실상의 코오치로 맹활약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선수층도 두텁게 보강하고 새로이 들어올 선수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훈련을 착실히 시킨다면 황 김 두선수에 이어 계속「4강의 정표」을 누빌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테니스부는 현재 여자선수들 만을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한해수확을보면을, 대학테니스연맹전에서 정정엽·박은이조가 맞당 우승을 차지했고 역시 박 두선수가 동대회 단식 3위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한 바있다。

현재 국내테니스계의 동향을살펴보면 남자선수들이 사상 처음 출한는등 기염을 토하고 있어 남자 선수들의 쭌점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인데 지금 남자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진국대학이나 명지대학등을 들수있다。이들은 두 우리나라 테니스계의 쌍대자들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교도 여자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선수들에 대한 발탁도 검토 될 실현한다면 「금상첨화」격이 될 것 같다。

빙상·스키

빙상은 작년에 이어 김영희 선수 (女) 의 독무대로 봐도 될 것같다。김영희선수는 현재 1천5백㎞에서 2분22초6으로 3천㎞에서 4분52초 F으로 두 종목 합목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주목기로 하는 선수이다。

또한 김영희 선수의 장거리에 심상일, 김은선 단거리에 전재용, 이현구등 4명의 선수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내 여왕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한편 김영희 선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상희 본교장인 노트웨이에서 장도있는 전지훈련을 마친 바 있어 작년 12월 시상식에서 그녀의 선과가 컸다。

또한 그녀는 대우실업의 하선수에 뒤이어 또다시 등장한 이영희선수가 그녀의 뒤를 따르게 되어 가능성까지도 높음의 엿보여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그녀는 한 가능성도 충분히 실현 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키부는 김일동선수를 비롯, 한상권, 김동태등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들의 작년 성적을 보면 김일동선수 (노르딕) 가 국내 1、2위를 다투고 있고 한상권 선수 (활화산) 김동태 선수 (활화산) 가 각각 개인 2、3위를 다투고 있다。그런데 본교 스키부는 현재 있는 단독연습, 종점 육성시키고 있는 만큼 스키부 선수들이 도전의 최적 조치로 각종대회 때마다 꼭 수명의 우승자를내는등 관록을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본교 체육관서 열

권투·레스링·빙상등은 선수층 보완해야

1㎞92의 곽장석등 頂上級센터 발탁

野球
전용구장 설립·후원회도 발족

籠球

레슬링

랑하는 본교 레슬링부는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노련한 최규철 코치를 중심으로 각종대회 때마다 꼭 수명의 우승자를내는등 관록을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본교 체육관서 열

권투

권투 역시 개인 종목으로서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 이들 잘 육성시키만하면 단체종목 못지않게 면모를 과시 할수있는 만큼 한층 더 유하고 있다。이들의 한해수확을보면을, 대학테

그 해결과 보완책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실정에 있다。또한 그간 눈부신 활약을 해왔던 국가대표급 배기열선수가 훈련을, 김종국선수가 군에 입대케 됨에따라 전력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나 남서경업전문학교의 박병래 최선달등 여러명의 유능한 선수들을 스카웃 하려하고 있어 그 보완도지간등에 다하겠다。

또 본교 레슬링부는 앞한 기술을 습득하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 2년마다 일본의 대동문화대와 친선교환경기를 갖고 있어 앞으로의 계속적인 활약이 기대된다。

권투

권투 역시 개인 종목으로서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 이들 잘 육성시키면 단체종목 못지않게 면모를 과시 할수있는 만큼 한층 더 유하고 있다。이들의 한해수확을보면을, 대학테

그럼데 이들 두 대표부가 모두 졸업을 하게 되어 단 2명의 소수정예로 그간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이들에 대해 그 뒤를 이어줄 우수한 선수 확보가 매우 커다란 문제로 떠두되어 현재 아세안 대회 메달리스트인 체육고교의 김수영 (웰터급) 학생선수 권대회 우승자인 김학선선수등이 스카웃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권투는 그동안 체육관의 김진영선생이 혼자 고군분투 사실상의 코오치로 맹활약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선수층도 두텁게 보강하고 새로이 들어올 선수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훈련을 착실히 시킨다면 황 김 두선수에 이어 계속「4강의 정표」을 누빌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테니스부는 현재 여자선수들 만을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한해수확을보면을, 대학테

이 필요할 것 같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다。정상 정상 그리고 그곳은 명고민 가시밭길이다。

그러나 불굴의 용 훈련으로 다져 정신전력을 강화하는등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집념을 불태우는 한 승리의 길이 펼나란 가시밭길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정상정복을 위한 준비와 부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각각 갈등및 코오치들부터 올한해를 겨냥한 동국체육의 전략을 들어본다。

▲야구부 홍문표교수=금년에는정상탈환을 위해 전력 집주하겠다。

▲축구부 송효律교수=3명의 졸업선수는 전력에는 큰 차질이 없다。작학년도 그 기량이 충분하므로 그들을 잘 다듬는다면 전력이 오히려 보강될수 있기때문이다。또한 신장열세도 스카웃으로 카버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훈련에의 여세를 몰아 주축을 이루고 있는 4학년 선수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기어이 우승의 영광을 안아보겠다。

▲농구부 吳榮煥교수=내가 농구코치로 본교에 와서 만 1년동안 쾌적한 주차업은 담선선수들 장선으로 골어올린는 것이었다。그 장석을 기용함과 이에 새로이 곽장석을 더하는데 나는 전체적인 기술만을 다듬으면 내년도 4강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레슬링부 崔圭喆코치=1、2학년이 주축이 되어 단체전과 아울려 개인전 위주로, 올해보다 뛰어난 노력할 성적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쓸 것이다。

▲복싱부 金錫炫코치=새로이 들어올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기술과 스테미나만 보강한다면 매우 자질있는 선수들이므로 또 다시 있을 것이다。선수로 앞성해 국가대표급 성장을 자치하겠다는 각독코오치들의 집념이 뭘부는 한편 올해 선수들의 결전이 벌부는 한편 올해 선수들의 결전이 벌부는 한편 올해 선수들의 결전이 벌